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작성 위반시 시정조치

문체부, 이달 말까지 점검 나서
근로·용역계약 혼재된 현장
고용부와 합동으로 점검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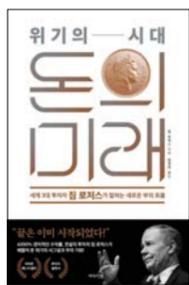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문체부)는 지난 30일부터 이달 말까지 공연, 방송 분야 등 문화예술계 현장에서 서면계약 작성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문화예술계는 특성상 자유활동가(프리랜서)와 단속적(斷續的) 계약 비율이 높다. '2018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업 예술인 중 자유활동가 비율이 76%에 달했다. 서면 계약을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 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문체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2016년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용역의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올해 6월부터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의무 명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권과 시정명령권을 신설해 예술인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명시사항

에는 계약 금액, 계약 기간, 업무의 내용,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문체부는 예술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한 사업장 현장을 우선으로 점검해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한다. 또한 제도에 대한 안내·상담을 통해 문화예술계 구두계약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이 혼재되어 있어 있는 현장은 문체부와 고용부가 합동으로 점검해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지난 5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개설된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와 연계된 17개 관련 협회·단체와 기관에서는 위반사항을 신고받을 뿐 아니라,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자 등 계약의 양 당사자에게 계약서 작성 상담, 법률 자문, 계약 교육, 표준계약서 보급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술인 고용보장제도 시행(12월 10일)을 앞두고 서면계약 체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서면계약 작성 지원, 계약 교육과 함께 지속적·정례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시스

짐 로저스가 말하는 부의 흐름

신간도서 - '위기의 시대, 돈의 미래'

"2008년 이후 11년간 지속된 글로벌 경제 호황이 곧 막을 내릴 것이다." 월가가 인정한 전설적 투자자 짐 로저스는 2019년 초부터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최악의 불황이 올 것이라 경고해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은 그 시기를 앞당긴 것일 뿐, 세계적 대우행 전부터 거품의 퀘적이 세계 경제 곳곳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에 대한 근거로 두 가지 신호를 꼽는다. 첫째는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위기의 전조'다. 1929년 대공황, 1987년 블랙 먼데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세계경제 위기 당시 추가 폭락, 기업 도산, 대량 실업 등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직전까지도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무섭게 상승했던 공황적 현상이 일었다. 이로 인한 '가짜 호황'과 날마다 경신되는 '사상 최고가'를 보며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이는 지금의 상황과 닮았다. 두 번째 신호는 '재정적자'다. 2008년 이후



각국 정부는 수조원에 달하는 돈을 찍어내고, 빌리고, 쓰고 있다. 미국은 지난 6개월 동안 빚 사상 가장 많은 액을 썼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세계경제의 백기사 역할을 했던 중국마저 국가 부채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 책에서 저자는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오랜 세월 축적된 경험, 날카로운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각 경제권에서 나타날 변화를 전망한다. 미국 대선의 영향과 무역 전쟁을 비롯해 브렉시트로 인한 유럽의 장기적 변화, 정치적 긴장도가 높아진 홍콩의 경제적 미래, 아프리카 대륙에서 중국이 야심차게 진행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 세계 경제 관세를 바꿀 수 있는 이슈들을 다룬다. 전경아 옮김, 264쪽, 리더스북, 1만7500원. /뉴시스

우리 지역 예술인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전북문화관광재단 '마스터 클래스', 오늘 우진문화공간 갤러리서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문화예술과 생활문화 기반 확장을 위해 2020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기획사업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마스터 클래스'는 도내 활동하는 예술인의 강연을 통해 예술동아리에 참가하는 회원 및 코디네이터 등 모든 인력에게 전문성을 향상하고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1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전주 우진문화공간 갤러리에서 '동동동아리를 지켜라'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 형식의 특별강연과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강연자로 는 극단 두루 김소라 작가, 타악연희원 아귀 박종대 대표, 우진문화재단 박영준 제작감독 등이 참여한다. 특히, 타악연희원 아귀가 함께 무대에 올라 신명 나

는 타악 공연도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사전 신청 접수를 통해 30명 이내의 예술동아리 회원 및 강사 코디네이터가 참여한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 예술 활동이 확대돼 향후 주민 네트워크까지 형성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0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은 청년·직장인·주인들이 생활권에서 예술 취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규모 동아리 활동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59개 동아리를 발굴했으며, 14명의 코디네이터와 56명의 강사, 67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장문성 기자



온라인 김제 문화제 야행 유튜브 동영상 캡처.

(사진=김제시청 제공)

'온라인 김제 문화제 야행' 성료

알쏭달쏭 퀴즈쇼 '큰 호평'
무형문화재 공예품 경매
지역 문화제 관심 높이는 계기

김제시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0 김제 문화제 야행(夜行)'이 코로나19의 제약 속에서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 홈페이지 사전접수를 통한 ▲ 문화제 복원기 ▲ 양반 증서 만들기 등의 콘텐츠는 400여 건의 수량이 하루 만에 마감되는 등 기대 이상의 반응을 보였고, ▲ 랜선 김제 샵도 부임 행사 ▲ 김제 갈래 켈리 등 SNS를 활용한 연계 콘텐츠도 참가자들의 관심과 김제의 문화제가

어우러져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역사 유튜브가 들려주는 김제 문화제 이야기와 알쏭달쏭 김제 문화제 퀴즈쇼는 김제의 역사를 배우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호평을 받았고, 김제 무형문화제 공예품 온라인 경매는 김제 명인들의 작품을 통해 지역 문화제에 대한 가치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2020 온라인 김제 문화제 야행을 통해 '우리 지역 문화제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고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김제문화제야행'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그 생생했던 감동과 김제 문화제의 맛을 언제든지 동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장수문화원 문화학교 강좌 민화그리기반 전시회 2~4일

장수군은 장수군청 로비에서 2~4일 문화학교 강좌 민화그리기반 공모작 수상작품을 전시하고 이용객들에게 일상 속 전통문화의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전시는 무료로 운영되며, 이운경 씨의 연화도와 괴석모란도, 이숙희 씨의 동심, 십장생, 유영미 씨의 화병도, 일월 오봉도, 이옥이 씨의 화조도, 신순임 씨의 초충도, 안귀화 씨의 맹호도 등 모두 14점의 민화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를 통해 군은 일상생활 속에서 전통문화를 경험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수강생들의 재능 나눔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원 문화체육관광과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돼 있는 주민들의 문화생활에 조금이나마 활력이 생동하길 바란다"며 "코로나 전시 이용객들은 반드시 마스크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비대면 한-러 문화의 달' 개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문체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김용락)과 함께 지난 30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비대면 한-러 문화의 달(Korea-Russia Virtual Culture Season)'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지친 한-러 양 국민을 다양한 비대면 문화교류행사로 위로하고자 마련됐다. 1일 오후 7시(서울 기준)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 기념공연: 인연-웃음에 담긴 이야기'로 막을 올린다. 4일 오후 3시에는 양국 문화교류 30년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교류 전망을 모색하는 '한-러 문화교류 포럼'이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다. /뉴시스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